

瑞山海域의 역사민속과 민중생활사

주 강 현

(제주대석좌교수 · 해양문화연구원장)

차 례

Ⅱ. 서산의 해상교통

- 1) 운하
- 2) 포구와 뱃길
 - 도선장과 도선
 - 정기 연락선
 - 사례1. 구도

“조선조 말기에 있던 일인데, 전라도 세곡을 선박으로 해상으로 운반하였다. 이때에 조선술과 항해술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전라도 연안에서 서울까지는 많은 날짜가 걸려야 했으며 또한 많은 포구를 경유하면서 정박하곤 했다. 이같이 여러 포구를 경유할 때는 이 세곡선의 감독관들은 의식적으로 수송 날자를 늦추어가면서 쌀을 팔아서 사복을 채우곤 하였기 때문에 이 세곡선이 안면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몇 섬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면도에 도착한 세곡선은 지금의 ‘쌀 썩은 여’라고 불리는 암초에 고의적으로 부딪혀 파선시켜놓고 조정에 사고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사고조사를 마치고 인명피해가 없음을 다행하여 문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일이 있을 뒤로 이곳 주민들은 이 지역을 ‘쌀 썩은 여’라 불렀다는 것이다.⁷³⁾

73) 『서산군지』, 1982, 714쪽.